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7강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눈멀게 했는가?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7-8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자(使者)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7:17), 공의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7:24), 또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8:15)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이고 교리적으로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뜻에 순종해서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9-1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9장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한마디로 말해,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이 된 이유는?

II. 보이지 않는 고릴라

1.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www.theinvisiblegorilla.com) 여기에는 두 그룹의 학생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학생들과 검은 옷 입은 학생들이 실내 농구를 하는데, 흰옷을 입은 학생들이 서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다 보고는 대뜸 “여기서 고릴라 지나가는 것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패스 숫자를 세느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 고릴라를 보신 분과 보시지 못한 분 사이에 지적 능력에서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실험을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했을 때와 다른 일반인들에게 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개 둘 중의 한 사람은 고릴라를 보았고, 하나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중 어떤 분은 이렇게 분명히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패스 숫자를 세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잘 못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무주의 맹시(inattentive blindness)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3. 사실 우리는 예상치 않은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의 가치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Joshua Bell(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의 지하철역에서 43분간 연주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

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장한나 혹은 사라 장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분이 지하철에서 한 시간 가까이 연주할 때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입도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는 사람의 평균치인 32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4.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장한나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듯이 연주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듯이 그렇게 유명한 연주가가 지하철에서 모자를 벗어놓고 연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주의 난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5. 사람이 흔히 착각하는 경우를 하나 더 들자면 자신감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도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마련입니다. 체스는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가 점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스 선수는 누구나 다 자신의 점수를 압니다. 그 점수 체계는 아주 정교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스 선수들에게 자신의 점수와 본래 실력 점수를 써내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의 현재 점수가 자신의 실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체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 사실 점수가 거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위권 점수일수록 자신의 현재 점수와 본래 실력 점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차가 컸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신감 착각이라고 합니다.

5. 이렇게 무주의 맹시, 무주의 난청, 자신감 착각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상입니다.

III. 바리새인들의 착각

1.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 착각, 무주의 맹시를 볼 수 있습니다. 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16절). 사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 반죽하는 것, 진흙을 섞는 것 모두 일 이었고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원칙, 안식일은 사람이 참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2) 또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오판했습니다(34절).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치유하는 것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감 착각, 무주의 맹시 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 착각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주장, 생각, 착각]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41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착각에 빠진 것 자체는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착각에 빠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착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3. 착각의 결과: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4.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사람은 다름 아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었습니다.

1)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과 침을 섞어 눈에 발라주고, 실로 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개안이 되었습니다(6-7절).

2) 그런데 이 개안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바고 그 사람인가 논쟁을 벌입니다(8-9절).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9절).

3)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대답합니다(17절).

4)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을 때는 아예 이들은 답을 주고 그에게 대답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 사람[예수]이 죄인인줄 아노라.”(24절).

-눈뜬 사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아니이다.”(25절) “이 사람[예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5) 결국 육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이 뜬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였고, 멀쩡한 눈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39절).

5.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어집니다.

1)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1-6절).

2) 사람들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바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설명을 했지만(7-18절), 유대인들 중에는 이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거나 귀신들렸다고 합니다(19-21절).

3) 그러자 예수님은 재차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자(30절),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돌려치려 합니다.

4) 결국 10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눈먼 것은 바로 그들의 본다고 하는 오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신들만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오만, 그것이 그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6.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오만에 의해 영적 착각에 빠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V. 적용과 실천: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1. 첫째, 자신도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늘 착각하며 삽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 경험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아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둘째, 열린 마음(open-minded)이 되면 착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 있는 바리새인들이 욕박질러도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그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출교를 당할까 봐 진리를 말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3. 셋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므로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35절).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맹인은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人子)로 받아들였습니다(38절).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그다음에는 선지자로(17절)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11절)

4. 넷째,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인 소스틴 원작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각자가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영국에서 베넷이라는 가족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 딸만 6명인 집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자 총각들이 둘이나 여름휴가를 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들을 이 총각들과 연결시키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결국, 큰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각각 빙리와 다아시라는 총각과 댄스파티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5. 그런데 다아시는 오만해서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아시'는 아름답고 지적인 그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에서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둔 뜨거운 사랑을 그녀에게 고백한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행동의 일 측면만을 보고(언니의 사랑을 방해한 것; 다아시의 친구를 배반한 것?) 너무 일찍 편견을 갖게 되어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아시가 자신의 동생의 어려운 문제를 몰래 많은 돈을 들여 해결해 준 것을 알게 되면서 다

아시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다아시는 자신의 이모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과 약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것을 보고 엘리자베스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결국, 이들은 사랑을 이룹니다.

6. 이때 고집쟁이 엘리자베스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어.”(I was wrong.) “그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I was entirely wrong about him.)
“우리는 그를 잘 못 판단했어.”(We misjudged him.) “그와 나는 정말 비슷해. 우리는 고집에 세요.”(He and I are so similar; we are so stubborn.)

7. 요한 웨슬레는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벗어났습니다. 박윤선 목사는 방언은 그쳤다고 가르쳤다가 제자들의 보고를 보고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다 밥을 먹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 어떤 감동도 체험하지 못하다가 알파 수련회에서 방언 체험했습니다.

8. 일상생활에서는 고수가 되면 착각에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착각에 좀 더 덜 빠집니다. 앞의 예에서 체스 고득점자, 연주회에 갔던 사람, 음악 전문가는 착각에 덜 빠졌다고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죄를 더 많이 보고 더 쉽게 회개하게 됩니다.

9. 우리 모두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도 그것이였다. “너희가 본다고 [주장, 생각, 착각]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느니라.” 우리는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V. 나가는 말

1.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10장을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눈멀게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답은 본다고 하는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그들을 눈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1-12장을 중심으로 “영광의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